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8호 【루계 제2758호】

주체112(2023)년 7월 8일 토요일 음력 5월 21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위대한 수령님은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신다

산을 보아도 거리와 마을, 어촌을 보아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와 가슴뭉클 젖어들게 하는 7월이다.

벌써 스물아홉해라는 세월이 흘렀다.

세월은 모든것을 망각속에 묻어버린다지만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이 나라 천만자식들의 사무치는 그리움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고 영생축원의 정갈한 마음들은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끝없이 물결쳐흐르고있다.

온 나라 인민 누구나가 다 그러하지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의 가까이에 또 하나의 사회주의번화가로 훌륭히 일떠선 화성거리에서 사는 주인들의 심정은 더우기 남다르다.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우리 수령님들께서 이 시각 희한한 화성거리에서 행복을 누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금수산태양궁전가까이에 복된 삶의 보금자리를 펴게 되니 위대한 수령님들생각이 더 강렬해져 아침저녁 수령님들께 인사를 올리군 합니다.》

《금수산태양궁전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르면 지금 선경의 새 거리에서 사는 우리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시며 너무도 기쁘시여 더욱 환하게 웃으시는것만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민이 누리는 오늘의 이 행복은 과연 어떻게 마련된것인가.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인민사랑, 위민헌신이 안아온것이다. 한평생 인민을 위해 이 나라의 새벽문을 남먼저 여시고 험한 길을 남먼저 헤쳐가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이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나는 동무들이 백미밥만 먹을수 있다면 이런 눈비를 얼마든지 맞겠소라고 하시며 진눈까비 내리는 캄캄한 밤에 몸소 홰불을 드시고 걸으신 삼석의 비탈길과 형식주의를 하려면 무엇때문에 여기까지 왔겠는가고 하시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에 걸으신 신도의 감탕길, 그리고 인민들이 있는 곳에는 다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몸소 승용차를 밀며 가신 우암의 진펄길…

공화국의 그 어디에나 인민의 행복을 위해 걷고 또 걸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이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식들의 생활을 구석구석 보살펴주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농촌집의 가마뚜껑도 열어보시고 새집들이한 가정을 찾으시여서는 구들이 따뜻한가 몸소 방바닥도 짚어보시였으며 공장로동자들의 합숙과 식당에도 들리시여서는 이불두터이도 가늠해보시고 국맛도 보아주시면서 인민들에게 행복만을 안겨주시기 위해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였다.

잊지 못할 주체83(1994)년 7월 7일에 새겨진 가슴뜨거운 혁명일화는 지금도 천만의 가슴을 적셔주고있다.

이날 밤늦도록 식사마저 제대로 들지 못하시며 무리하게 사업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식사를 하시고 좀 쉬시기를 바라며 애원하듯 말씀올리는 한 일군에게 그이께서는 고맙소, 하지만 우리가 인민들을 위해 할 일이 얼마나 많소, … 내가 일손을 놓으면 최고사령관에게 그만큼 부담을 더 주게 될것이요, **김정일**동지가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혼자 걸머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있소, 나는 **김정일**동지가 인민을 위하여 밤새워 일하는걸 보면 잠시도 쉴수가 없소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무더운 한여름의 밤은 깊어만 가는데 80고령의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사업은 계속되였다.

문건을 보시고 전화를 하시고 또 문건을 보시며…

정녕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의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깡그리 바치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새 세기를 맞으며 지나온 세기를 돌이켜보니 수령님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수령님께서 인민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마음을 많이 쓰시였으면 자신의 건강을 축원하는 일군들에게 우리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부럼없이 살게만 되면 100살까지 살수 있다고 하시였겠습니까, 우리는 수령님께서 그처럼 바라시던 숭고한 념원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워야 합니다라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의 념원을 꽃피우시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나라의 높은 령, 험한 길을 다 넘고 걸으시고 이 땅의 찬눈비는 다 맞으시면서 인민이 누려갈 만복의 씨앗들을 뿌리시였으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같은 인민사랑의 력사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이 땅에 맥맥히 흐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일먼저 오르신 마식령스키장의 삭도며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의 승강기를 타보아도, 그이께서 몸소 지도해주신 화성거리형성안이 1 630여건이나 된다는 어느 한 일군의 격정에 젖은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으신 그 눈에 익은 운동화의 뒤축이 다 닳았더라면서 눈물짓던 평범한 건설자의 고백을 통해서도, 수령님께서 계시던 저택구역에 현대적인 다락식살림집을 지어 인민들에게 안겨주려고 한다는것을 아시면 아마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기뻐하실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수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이런 좋은 자리를 묵여두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며 보통강강안 다락식주택구건설현장을 찾고 또 찾으시며 온 세상이 부러웁게 일떠세워주신 인민의 호화주택구—경루동을 바라보아도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위민헌신의 세계를 잘 알수 있다.

하기에 이 땅의 행복의 주인공들은 이렇게 심장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다.

《제가 해놓은 일이 있다면 수십년간 한직종에서 묵묵히 일해온것뿐입니다. 그런데 당에서는 저를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내세워주고 경루동의 호화주택에 제일먼저 불러주었습니다.》

《모든것이 풍족하고 넉넉한 때 받아안은 사랑이라면 이다지도 눈물겹지 않겠습니다. 나라사정이 제일 어려운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리같이 평범한 로동자가정에 궁궐같은 새집이 안겨질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당과 국가의 절대적지침으로 되고 인민을 위한 사변과 기적들, 거창한 변화들이 끝없이 태여나는 이 땅, 이 시대이다.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더욱 만발하는 인민의 행복, 고난속에서도 더욱 아름다와지는 인민의 리상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있다. 창전거리의 45층살림집으로부터 미래과학자거리의 53층살림집, 려명거리의 70층살림집을 거쳐 송화거리의 80층살림집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솟구치며 쉼없이 나래쳐오른 행복의 고층, 초고층살림집들은 위대한 어버이의 심혈과 로고가 주추로 되여 받들어올린 인민의 행복의 높이이다.

수도 평양뿐이 아니다. 인민의 진정에 넘친 목소리는 평양의 거리를 떠나 멀리 갈수록, 어렵고 힘든 곳일수록 더 뜨겁게 울리고있다. 삼지연과 중평, 련포와 김화에서 울리는 인민들의 말도 들어보고 사랑의 농기계들이 줄지어 달리는 황남의 드넓은 포전들을 밟으며 땅처럼 소박한 연백벌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았다. 사회주의농촌의 새집들이기쁨과 함께 눈물젖은 인민의 목소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만세!》의 메아리가 울리고있다.

바로 이 말들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력사는 영원히 흐른다는 철리가 비껴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공화국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우리들을 축복해주신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며 경애하는 원수님따라 부흥강국의 휘황찬 미래를 당겨오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손지성

인민을 위해 걸으신 헌신의 천만리

세기를 이어 울리는 흠모의 송가들을 들으며

한평생 인민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마음이 강산에 차넘치는 이 나라의 7월이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아름답게 변모되는 거리와 마을, 공장과 농촌, 어촌 그 어디를 가보아도 숭엄히 어려오는것은 해빛같이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던 위대한 어버이의 자애로운 영상이다.

그 자애의 모습을 우러를수록 인민의 마음속에 오늘도 뜨겁게 울리는 노래가 있으니 그것은 가요 《수령님 밤이 퍽 깊었습니다》이다.

행복의 요람속에 인민을 재우시고
이밤도 사랑의 길 떠나시는 수령님
찬이슬 내리는데 또 어데 가시옵니까
수령님 수령님 밤이 퍽 깊었습니다
…

공화국인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절절히 부르고 또 부른 이 노래.

1975년에 창작된 이 노래는 어느 한두명의 작가, 작곡가가 지은 노래이기 전에 인민의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가사가 되고 선률이 된 노래이다.

노래의 구절구절을 새겨볼수록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궂은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신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어려와 눈굽을 적시고적시는 이 나라 인민들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방직후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을 찾아 걸으신 길은 무려 지구를 14바퀴반이나 돈것과 맞먹는 144만 5 000여리에 달하며 찾으신 단위는 2만 600여개를 헤아린다는 사실은 그이께서 인민을 위해 그 얼마나 마음쓰시고 헌신하시였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돌이켜보면 강도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을 큰 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날부터 20성상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가 해방된 다음에는 건당, 건국, 건군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느라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였다. 그리고 준엄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전쟁이 승리한 다음 푹 쉬자고 하시며 최고사령부작전대결에서, 위험한 전선길에서 한밤을 지새우시며 력사에 전무후무한 위대한 전승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세월은 흘러 이 땅에 천리마가 날아오르고 사회주의공업화의 완성이라는 력사적순간도 맞이하였으며 꽃피는 사회주의락원에서 인민들의 행복은 나날이 늘어났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그날의 약속만은 지키지 않으시였다.

이 땅에 흘러온 무수한 날들에 새겨진 인민을 위한 어버이수령님의 헌신과 로고를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만 여기에 하나의 이야기를 적는다.

어느해인가 한 일군은 밤 깊도록 문건을 검토하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 단 하루 밤만이라도 쉬시였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안고 당시 공화국을 방문한 어느한 나라 대표단의 반영자료를 가지고 찾아갔다.

그 반영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었다.

《…우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체류하고있는 기간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인간중심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사회주의조선의 발전모습에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는 특히 한세대에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강철의 령장이시며 조선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원로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지금도 매일과 같이 공장과 농촌을 찾으시며 현지지도를 하고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나라 국가수반은 1년에 한두번 국가행사에 나타나고는 늘 국가휴양지에 가있기때문에 우리 정부성원들도 좀처럼 그를 만나보기가 어렵다.

우리는 쌓아올리신 공적으로 보나 년세로 보아 **김일성**주석께서도 응당 쉬시면서 사업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군이 가져온 반영자료를 다 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며 그 나라 국가수반은 어떻게 일하는지 알수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일할수 없다고, 동무는 오래동안 나와 함께 일해왔는데 왜 아직도 이런것을 들고다니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가고 하시였다.

가슴에 차넘치는 안타까운 심정을 누를길 없어 《수령님, 밤이 깊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일군에게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는 일없다고, 산에서 싸울 때부터 늘 잠을 적게 자다보니 이제는 버릇이 되여서 피곤을 느끼지 않는다고, 자신께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하시며 다시 부피두터운 문건을 한장 또 한장 번지시였다.

그밤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방의 꺼질줄 모르는 불빛을 바라보며 《수령님, 밤이 퍽 깊었습니다.》 하고 몇번이고 속으로 되이였다고 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시는 하루하루는 이렇듯 한순간의 휴식도 없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불면불휴의 헌신의 련속이였다.

인민들에게 더 좋은것을 더 많이 안겨주시려고 아침에 비 내려도 인민을 찾으시고 깊은 밤 눈내려도 온 나라 돌보시며 머나먼 북변땅 두메산골로부터 파도세찬 어촌마을에 이르기까지 인민을 찾아 걷고 또 걸으시며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로고에 로고를 바쳐가신 어버이수령님과 같으신 인민의 어버이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하기에 인민의 행복을 위해 깊은 밤 한순간의 휴식마저 잊으시고 끊임없는 사랑의 길,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잠시라도 편히 쉬시옵기를 바라는 인민의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수령님 밤이 퍽 깊었습니다》라는 노래가 되여 이 나라의 거리와 마을, 공장과 농촌들에 울려퍼지였었다.

인민은 노래로써 수령님께 간절히 아뢰이였다.

잠시라도, 한시라도 편히 쉬시옵기를 바란다고.

인민의 소원담은 그 노래는 해가 바뀔수록 더욱 절절하게 울리였다.

어찌 공화국인민뿐이랴.

위대한 주석님을 흠모하고 그이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진보적인류도 간절한 마음안고 이 노래를 불렀다.

언제인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에서 어느한 나라의 녀가수가 뜨거운 경모의 정을 안고 이 노래를 절절하게 부른적이 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한 련환공연에서 그 녀가수는 이 노래를 부르고나서 조선말로 《수령님, 수령님, 밤이 퍽 깊었습니다.》라고 울먹이며 말씀올리였다.

극장안이 떠나갈듯 박수소리가 터져오르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녀가수에게 손을 흔들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사업한 한 일군은 후날 그때를 되새겨보며 무대에도 관람석에도 감격의 파도가 설레이고 모두가 눈굽을 뜨겁게 적시고적시던 그 순간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감격에 목메여 말하였다.

그렇게 흘러간 한해한해, 아니 위대하고 거룩한 한평생이였다.

그러나 그 혁명령도의 나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였다.

언제나 인민을 위해 현지지도의 머나먼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지어 한해에 한번밖에 없는 자신의 생신날에조차 그이께서는 수도를 멀리 떠나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군 하시였다.

이렇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고 그 길에서 인민들에게 주실수 있는 온갖 기쁨과 행복을 다 안겨주시였다. 정녕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신 어버이수령님을 천년이 간들 만년이 간들 인민들이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그리움의 이 7월, 인민의 눈가에는 어리여온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사랑하는 인민의 운명을 지켜 험한 가시덤불길을 헤치고 또 헤쳐가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쉬임없는 선군장정의 날과 달들도.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시하시였다.

나는 만경대가문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룩해놓은 업적이 크다고 해서만 아닙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말씀대로 인민을 위해 일복을 타고난 가문이기때문에 자랑하는것이며 스스로 일감을 만들어 피와 땀을 바쳐왔기때문에 자랑하는것입니다. …

나는 오직 인민을 위하여 수령님의 당부대로 한평생 일감에 파묻혀살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울리는 위인의 심중의 토로인가.

인민을 위한 일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멀고 위험천만한 전선길을 걷고 또 걸으시며 나라의 방위력을 최대로 다져주시였다. 강계와 라남, 희천을 비롯하여 온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고 또 찾으시며 만복의 씨앗들도 뿌려주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

언제나 잠시의 휴식도 없이 인민의 행복을 지켜, 이 땅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세월의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며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온 나라 인민들은 이렇게 격정의 노래를 지어 불렀다.

눈오는 이 아침 우리 장군님
그 어데 찾아가십니까
찬눈을 맞으며 가시는 길에
이 마음 따라섭니다
이 땅의 눈비는 우리가 다 맞으리니
장군님 장군님 찬눈길 걷지 마시라
…

참으로 가요 《수령님 밤이 퍽 깊었습니다》와 《장군님 찬눈길 걷지 마시라》는 부르면 부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깡그리 바치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절세위인상이 뜨겁게 어려오는 영원한 흠모의 송가이다.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이 구현된 공화국에서는 오늘도 령도자가 인민을 위해 전대미문의 험로역경을 앞장에서 헤쳐나가고계시며 인민은 그 따사로운 품속에서 행복을 누리고있다.

온 나라 인민이 단잠에 든 깊은 밤에도 이른새벽에도, 찌물쿠는 삼복의 무더위와 찬바람 몰아치는 추운 겨울에도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고 언제나 인민을 위한 길에 계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김정은**원수님.

사랑하는 조국을 온 세상이 우러르는 천하제일락원으로 일떠세울수만 있다면 한몸이 설사 한알의 모래알이 되여 후대들이 걸어갈 길우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의지를 안으시고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위민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를 우러르며 천만인민은 심장으로 노래하고있다.

온 하루 먼길우에 찬바람 맞으시고
이밤도 사색을 이으시는 원수님
자정이 자정이 넘었는데 언제면 쉬시렵니까
원수님 원수님 이제는 삼태성도 기울었습니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을 위해 바쳐가시는 사색의 분분초초가 그대로 희한한 현실로 펼쳐지고 그 헌신의 하루하루가 모이고모여 인민의 세월로 이어지고있기에 누구나 그이와 함께 걸어온 10여년려정을 뜨거운 감격과 격정속에 되새겨본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주체조선의 100년사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인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존함과 불멸의 혁명업적으로 빛나는 가장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력사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며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성스러운 려정을 이어오신 경애하는 그이이시다.

그 려정우에 꽃펴난 인민의 보금자리는 그 얼마이며 희한한 창조물들은 또 그 얼마이던가.

이 땅에 펼쳐지는 황홀경 하나하나가 다 경애하는 그이의 위민헌신의 순간순간들이 안아온 사랑의 결정체들이다.

인민을 위해 한순간의 휴식도 잊으시고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루일과의 시작은 언제이고 그끝은 어디인지.

언제인가 시간의 흐름을 잊으신듯 사색과 탐구를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한 일군이 새날이 밝아올무렵이 되였는데 이제는 잠시라도 쉬셨으면 하는 간절한 청을 드리였었다.

밤을 꼬박 밝히시였는데 이른아침이 다되여오는 지금만이라도 휴식하셔야 새날의 사업을 이어가시지 않으랴 하는 마음에서였다.

그의 심정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오늘이라는 개념을 동무들과 다르게 생각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늘이라면 하루사업이 끝나는 저녁까지 보거나 24시까지를 념두에 두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자신께서는 오늘을 다음날 5시까지로 보고 사업을 한다고, 그렇기때문에 방금전인 5시에 하루사업을 총화하고 새날에 진행할 사업을 계획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사람들 누구나 래일로 여기는 다음날 새벽 5시까지를 오늘로 여기시며 한밤을 꼬박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한 사색과 탐구로 지새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그이의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탐구는 그대로 인민의 기쁨과 행복으로 이어지거니 사람들은 후더워오르는 격정속에 령도자의 로고와 심혈을 되새겨본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하시며 인민을 위해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흙탕물 튕겨나는 진창길도 남먼저 걸으시고 물먹은 철길로반들이 어느 시각에 주저앉을지 모를 위험천만한 길도 주저없이 헤쳐가신 경애하는 원수님.

나에게는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인민이 장군님의 영상으로 안겨온다고, 나는 장군님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일을 잘해나가겠다는 생각뿐이라고 하시며 건국이래 대동란이라고 할수 있는 최대비상방역기간의 나날에조차 희생을 무릅쓰시고 인민을 위해 걷고걸으신 헌신의 그 길들.

하기에 인민들은 뜨거운 격정안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그이의 건강과 안녕을 간절히 바라고있는것이다.

…
조국의 부강위해 온넋을 불태우시며
찬란한 우리 미래 펼치시는 원수님
새날이 새날이 밝았는데 또 먼길 떠나십니까
원수님 원수님 노을도 소원 안고 불타옵니다

원수님 한분만 믿고 사는 인민의 소원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원수님 안녕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인민이 사랑하고 심장으로 부르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송가들에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 인민의 축원의 마음이 실려있다.

천만의 심장속에 어제도 울리고 오늘도 울리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열화같은 매혹과 경모의 송가들은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공화국의 하늘가에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

승리할 래일을 내다보시고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2(1953)년 1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부르심을 받고 최고사령부로 간 몇몇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남관개공사와 관련한 준비사업을 함께 의논해보자고 동무들을 불렀다고 하시였기때문이다.

(전쟁이 한창인 이때에 관개공사라니…)

이러한 일군들의 생각을 헤아리신듯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미제침략자들이 강한것처럼 허장성세하지만 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르시였다.

미제침략자들이 패배하고 우리가 승리한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일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전후에 해야 할 일을 미리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혁명가들은 언제나 미래를 앞당길줄 알아야 한다. …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동무들은 그 준비사업을 지금부터 다그쳐야 하겠다고, 미제날강도들은 평남관개시설을 모조리 파괴했지만 우리는 미국놈들이 파괴한 그 자리에 세계1등급의 평남관개를 건설하자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이 땅에서는 관개공사준비라는 거창한 창조사업이 벌어지게 되였다.

밖에서 하신 검소한 식사

주체48(1959)년 8월 어느날 자강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한 마을을 가까이하자 승용차를 마을과 좀 떨어진 곳으로 돌리도록 하시였다.

(점심식사전에 또 무슨 사업을 하시려는가?)

그이와 동행한 한 일군이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사이에 승용차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신 강기슭의 평평한 풀밭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척에 있는 마을을 바라보시고나서 일군들에게 오늘 점심식사는 여기서 하고 떠나자고 풀밭에 스스럼없이 앉으시였다.

일군이 위대한 수령님께 마을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셨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인민들에게 페를 끼치지 말자고 하시며 마을은 가깝지만 여기서 점심을 하자고 이르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을 뵙기 위해 마을에 와있던 도의 일군들이 달려왔다.

마을을 지척에 두시고도 풀밭에서 검소한 점심식사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인사를 올리는 그들의 목소리는 모두 젖어있었다. 그들중 한 일군이 울먹이며 이야기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번에도 이렇게 바깥에서 식사를 하시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동행한 일군은 그에게 이러한 대답밖에 줄수가 없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지난날도 그러하셨지만 앞으로도 그러하실것입니다.》

켜지 못한 전등

주체66(1977)년 8월 어느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고 금수산의사당(당시)으로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관복도앞에 이르시자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동행한 일군들이 영문을 몰라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데 그이께서는 왜 이렇게 전등을 많이 켜놓았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그에 대하여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며 지금 전기때문에 인민들이 불편을 느끼고있는데 우리가 전등을 이렇게 많이 켜놓으면 되겠는가고, 복도가 어두워서 불을 켜놓아야 한다면 드문드문 켜놓으라고 이르시였다.

며칠후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이 념려되여 복도의 전등을 또다시 모두 켜놓았다.

그것을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즉시 일군을 부르시여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전기가 생산되여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로력이 드는지 동무는 아마 잘 모를것이다.

지금 로동자들은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고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회의에서 전기절약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릴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그런데 우리라고 례외로 되여서야 되겠는가. 동무의 마음은 알만하지만 앞으로는 꼭 필요한 장소에만 불을 켜놓아야 하겠다. …

이렇게 되여 금수산의사당 복도에는 켜지 못한 전등들이 있게 되였다.

본사기자

행복이 문을 두드리는 세상

요즈음 누구나 공화국의 신문과 TV로 자주 접하는 소식이 있다.

새집들이소식이다.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농촌건설구상에 의하여 사회주의리상촌들이 앞을 다투어 솟아나는 속에 어제는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량강도, 개성시의 여러 농촌마을에서 새집들이 경사가 펼쳐지더니 최근에는 인민이 주인된 공화국의 우월성을 온 세상에 과시하며 평양시의 대평지구가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행복의 보금자리로 전변되였다.

새 보금자리에 입사한 주인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은 서로 달라도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집안에서 행복이 반겨주고 문을 열고 나가면 밖에서 행복이 기다린다고, 정말 우리 세상은 행복이 문을 두드리며 찾아오는 세상이라고…

인간이 살아가자면 보금자리인 집이 있어야 하고 그 집을 드나들자면 문이 있어야 한다. 문과 관련한 우리 겨레의 생활풍속에서 이채를 띠는것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문을 복과 련관시켜 보았다는것이다.

《첫새벽에 문을 열면 오복이 들어온다.》, 《들어오는 복도 문 닫는다.》는 조선속담에도 있는것처럼 지난날 우리 선조들은 문으로 복이 들어오고 문으로 복이 나간다고 생각하였다. 고전소설 《흥부전》에서 마당쇠가 놀부에게 마당비를 대문안쪽으로 쓸어야 복이 들어온다고 하는 대목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 겨레가 그처럼 바라며 복이 깃들기를 소원했건만 집문으로 과연 복이 들어왔던가.

가난과 걱정, 슬픔과 비애만이 찾아들어올뿐 복은 그 어디에도 깃들 자리가 없었다.

오랜 세월 봉건의 쇠사슬에 얽매여 살아오다나니 가난과 기근에서 벗어날수 없었고 남존녀비의 세상에서 녀성들은 대문밖출입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집울안에 갇혀 속절없이 살아야 하였다.

국력이 약해 종당에는 나라마저 송두리채 빼앗겨야 했으니 삼천리가 칠칠암흑에 잠겨있던 수난의 세월 얼마나 큰 불행과 재난, 슬픔과 눈물이 때없이 집문을 두드리며 찾아왔던가.

징용장, 빚문서가 문을 두드리고 사망통지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렇게 840만여명의 청장년들이 강제로 차와 배에 실려 죽음의 고역장으로, 전쟁터로 끌려갔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이 일본군성노예로 끌려갔다. 그런 불행과 재난속에 살아서 다시 제 집문안에 들어선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던가.

이렇게 흘러온 이 나라 인민의 피눈물나는 력사이다.

이 기나긴 민족수난의 력사를 끝장내신분은 과연 어느분이시였던가.

이 나라 인민에게 복된 삶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분은 바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이시였다.

나라가 해방되였다는 그 감격적인 소식과 함께 이 나라 매 가정의 문으로는 비로소 행복이 찾아들기 시작하였으니 장군님 은덕으로 대대로 소작살이로, 머슴살이로 잔뼈가 굵어온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땅이 분여되고 그 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어 문이 좁다하게 제손으로 지은 옥백미를 실어들일 때, 중요산업국유화와 로동법령발포로 공장의 주인된 로동자들의 기쁨이 새 조선을 부강하게 하기 위한 증산경쟁운동으로 이어지고 각급 학교에서 배움의 종소리가 울릴 때 인민의 얼굴로 흘러내린것은 눈물이였던가, 행복의 구슬이였던가.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지론으로 삼으시고 정력적인 령도와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이 땅우에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의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인민을 위한 천만로고에 의하여 인민의 행복은 더 커지고 그것은 그대로 온 나라 가정들의 문을 열고 들어와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전설로 사람들의 심장속에 새겨졌다.

오늘 공화국의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더욱 복되고 존엄높은 삶을 누려가고있다.

절세위인의 인민사랑에 의해 이 땅의 그 어디나 인민이 사는 집집마다에는 행복이 문을 두드리며 찾아온다.

이 나라 매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보시라. 아마도 복받은 자랑거리가 없는 집은 하나도 없을것이다.

그 자랑중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새 살림집의 주인이 되였다는 희한한 자랑도 있고 한날한시에 형과 동생이 국가에서 안겨준 살림집리용허가증을 손에 들고 행복의 자기 집문들을 열고 들어섰다는 격정의 이야기도 있으며 평범한 도로관리공이 궁궐같은 경루동살림집의 주인이 되였다는 꿈같은 자랑도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배려로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 가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왔다는 전쟁로병의 자랑도 감동적이지만 소년단대표로 평양에 올라가 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벌목공 아들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가슴을 울려주는것인가.

정녕 공화국은 인민이 사는 그 어디서나 행복이 문을 두드리며 찾아오는 세상이다.

집집마다에 행복만이 찾아드는 공화국에서는 적대세력들이 몰아오는 침략의 불구름도 이 나라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을 빼앗지 못하고 그 어떤 자연재해도 인민의 복된 삶을 해치지 못한다.

몇해전 폭우와 강풍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금천군 강북리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일떠선 현대적인 농촌살림집들을 바라보시면서 간만에 또 한번 가슴이 뿌듯하고 발걸음이 가벼워진다고, 이곳 주민들이 새 마을과 살림집에 정을 붙이고 부디 행복하게 잘살며 이 고장에 언제나 복이 깃들기를 바란다고 축복해주시였다.

바로 그 뜨거운 사랑과 하늘같은 은덕에 떠받들려 자연재해로 불행을 당했던 사람들이 원래 쓰고살던 집보다 더 훌륭한 새집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였다.

공화국의 령토에 악성전염병이 침습하였던 최대비상방역기간에도 이 나라 매 가정들의 집집마다 문을 두드린것은 불보다 뜨거운 인민사랑이였다.

이렇듯 이 나라 매 가정의 집집마다에 찾아드는 모든 행복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 위민헌신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온 나라 대가정의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되시여 침략의 무리들이 덤벼들지 못하게 나라의 대문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천만자식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행복만을 안겨주시는 한없이 자애롭고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이 땅에서는 어디 가나 사회주의만복을 누려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넘쳐나고 매 가정의 집집마다에는 오늘도 래일도 기쁨과 행복만이 깃들것이다.

본사기자 김 강 철

함께 울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대가정

전쟁로병의 친혈육이 되여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을 창조한 귀중한 혁명선배들인 전쟁로병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며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진정을 다하여 돌보아주는 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다.

북새원종업원들도 모란봉구역 서흥동 41인민반에 살고있는 최봉금전쟁로병의 건강과 생활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고있다.

뜻깊은 전승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던 몇해전 어느날이였다.

그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았던 북새원종업원들은 한 전쟁로병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전화의 군복차림으로 승리상앞을 떠나지 못하고있는 전쟁로병의 얼굴에는 숙연한 감정이 어려있었다.

그가 바로 최봉금전쟁로병이였다. 그를 부축해주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나선 이곳 종업원들은 머리에 흰서리가 내렸어도 조국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우던 그날의 모습으로 살려는 전승세대의 고결한 정신세계에 깊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조국을 지켜 피흘려 싸운 전쟁로병을 잘 돌봐주는것은 우리 새세대들의 마땅한 의무이고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최봉금전쟁로병과 인연을 맺은 이들의 발걸음은 로병의 가정으로 이어졌다.

나라에서 후세토록 길이 찬양하고 본받아야 할 고마운 은인으로, 참다운 스승으로 귀중히 여기고 내세워주는 전쟁로병들을 위해 바쳐가는 이들의 진정은 뜨거웠다.

그들은 명절과 휴식날은 물론 전쟁로병과 그의 가족들의 생일날에도 찾아가 지성을 바치군 하였으며 철따라 영양식품을 마련하여 로병할머니에게 안겨주는것을 잊지 않았다.

저저마다 전쟁로병할머니가 로당익장하기를 바란다며 축하의 노래도 불러주고 성의껏 마련한 기념품도 안겨주는 모습을 보며 로병도, 그의 가족들도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때마다 북새원종업원들은 한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전화의 로병들이 있어 오늘의 우리가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쟁로병들이 전화의 나날에 발휘한 영웅적위훈을 계속 빛내여나가도록 힘이 되여주고 보탬이 되여주려는 이들의 마음은 만족을 몰랐다.

해마다 뜻깊은 전승절이 오면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과 전시공로자들을 평양에 초대하도록 하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에 접할 때마다 그들은 전승세대를 위하는 자기들의 마음이 어쩐지 모자라는것만 같았다.

더우기 고령의 나이이지만 언제나 락천적으로 생활하면서 조국의 부강번영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애쓰는 전쟁로병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전승세대의 정신세계에 자신들을 비추어보며 한생을 애국헌신으로 빛내여갈 마음을 가다듬군 하였다.

얼마전에도 이곳 종업원들은 많은 식료품과 보약을 마련해가지고 또다시 전쟁로병의 집을 찾았다.

성의어린 갖가지 보약들도 그러하지만 그들이 부르는 《결전의 길로》, 《샘물터에서》와 같은 전시가요는 전쟁로병할머니에게 큰 힘을 안겨주었다.

북새원종업원들이 전쟁로병의 집을 찾은지도 여러해가 되였다. 이 나날 이곳 종업원들은 최봉금전쟁로병과 한식솔이 되였다.

한식솔이 된 이곳 종업원들, 그들의 가슴속에는 전쟁로병들을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가려는 아름다운 지향이 간직되여있다.

오늘도 이곳 종업원들은 전쟁로병의 건강과 생활을 보살펴주는것을 응당한 도리로, 본분으로 간직하고 그 길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고있다.

본사기자 홍 범 식

두고 아이들의 천국과 지옥

나는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원림경관에도 좋은 해바라기를 연구하는 식물학연구사이다.

직업적인연으로 하여 나는 남달리 해바라기를 사랑하며 그와 관련된것이라면 무엇이나 눈여겨보군 한다.

며칠전 출근길에서 뻐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나의 눈길은 신문대에 비치된 《로동신문》의 글줄에서 오래동안 떠날줄 몰랐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열리고 회의에서 새로운 육아정책의 집행실태를 상세히 분석총화하고 젖제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며 일관성있게 추진할데 대한 문제, 후대들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데 대한 문제 등이 토의결정되였다는 소식이였다.

국가적인 중요회의때마다 언제나 후대들을 위한 사랑의 조치가 취해지군 하는것이 공화국의 감동깊은 현실이다.

그 보도를 읽어내려가느라니 문득 집안의 가보로 소중히 간직된 딸의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대표증이 떠올랐다. 대표증에는 우리 소년단원들을 상징하는 해바라기들이 새겨져있다. 그 대표증을 가슴에 꽉 안고 딸애는 아버지원수님께서는 우리 소년단대표들이 태양을 따르는 충성의 해바라기들중에서도 제일 큰 해바라기가 되기를 바라고계신다고, 대표증의 해바라기가 언제나 아버지원수님의 높은 뜻을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10점꽃을 활짝 피우는 영원한 자기의 모습으로 되게 하겠다고 다짐하였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태여나면 애기궁전, 자라나면 소년궁전에서 온갖 혜택을 다 받으며 꿈과 희망을 한껏 꽃피우고있는 우리의 아이들이다.

그애들에게는 따사로운 빛과 열, 행복의 자양분을 한껏 안겨주시며 미래의 역군으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태양이 계신다.

힘겨울수록 후대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으로 되여야 한다시며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는 그이는 바로 아이들의 위대한 해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헌신과 대해같은 사랑속에 공화국의 곳곳에는 애육원과 육아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을 비롯한 수많은 아이들의 보금자리들과 소년궁전, 소년단야영소, 아동병원들이 시대의 기념비들로 일떠서고 《해바라기》학용품을 갖춘 《소나무》책가방을 메고 신입생들이 무료교육의 꽃대문에 들어서고있으며 소년단원들의 밝은 웃음소리, 우렁찬 발걸음소리에 번영할 새해의 아침이 밝아오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펼쳐지지 않았던가.

력사에는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을 미덕으로 간주한 위인들의 일화가 적지 않게 전해져온다.

하지만 한몸이 설사 한알의 모래알이 되여 후대들이 걸어갈 길우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일념으로 후대들에게 크나큰 사랑만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우리 원수님 같으신분은 알지 못하고있다.

아버지원수님의 후대사랑이 이처럼 강렬하고 진정으로 뜨거울진대 어찌 우리 아이들이 해님만을 믿고 따르는 해바라기로 살지 않을수 있으랴.

그러나 한지맥으로 이어진 남조선의 어린이들은 과연 어떤 처지에 있는가.

언제인가 신문지상에는 이런 글이 실린적이 있다.

2003년 5월 4살 난 처녀애에 대한 끔찍한 성폭행사건이 발생하여 민심이 들끓자 남조선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폭력방지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한다, 13살미만 폭력범죄피해어린이들을 치료하는 《아동쎈터》라는것을 각 지역들에 내온다 하면서 분주탕을 피웠다.

하지만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두번이나 지나도록 위정자들의 허울뿐인 아동정책과 썩어빠진 미국식생활양식이 범람하는 남조선사회에서 아동학대, 아동폭력, 아동천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기만 했다. 지난해 6월에만도 남조선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 무려 5만여건이나 일어났다고 한다.

그런데도 《아동쎈터》들은 인력난, 자금난을 구실로 운영은 명색뿐이고 심지어 피해자가 찾아가도 인원과 자리가 없다며 치료와 지원을 아예 거부하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는 《완전히 망조가 든 세상》, 《미래에 사망선고를 내린 암울한 땅》, 《당국의 정책작성에서 아이들은 아예 없다.》며 개탄하고있다고 한다.

해당 사회의 진면모와 전도를 보려거든 아이들을 보라고 했다.

한없이 따사로운 후대사랑의 정치아래 아이들이 온갖 복을 받아안으며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동이들로 자라나는 공화국과 어린이들이 싸늘한 랭대와 무관심속에 시들어가고 온갖 비인간적인 악행과 폭력범죄에 짓눌리다 못해 복지기관이라는 《아동쎈터》에서까지 버림받는 남조선사회.

정녕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의 천국과 지옥을 대비적으로 잘 보여주는것이다.

그렇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은 조선로동당의 제일중대사이고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땀을 흘리고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시며 이 땅을 아이들의 왕국, 미래사랑의 락원으로 꾸려가시는 위대한 해님이 계시여 우리의 아이들은 태양만을 따르는 충성의 해바라기들로 씩씩하게 자랄것이며 공화국의 앞날은 끝없이 푸르청청할것이다.

이런 생각속에 오른 뻐스안의 방송에서는 《**김정은**원수님은 우리 아버지》의 노래가 랑랑히 울리고있었다.

권 지 혜

도서 《김일성주석님과 재일동포》를 펼치며

우리 민족이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천만뜻밖에 서거하신 때로부터 어느덧 29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 나날은 우리 겨레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민족의 어버이로 모시고 살아왔던가를 심장으로 절감한 나날이기도 하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그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이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한없이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를 도서들에 담아 세상에 내놓았다.

그 하많은 도서들가운데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발행한 도서 《**김일성**주석님과 재일동포》도 있다.

도서에는 재일동포들의 운명개척에서 세기적전환을 가져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과 현명하고 세심한 령도, 은정넘치는 사랑과 보살피심을 되새기며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충정의 마음이 깃들어있다.

한페지 번지면 총련이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대신하는 진정한 어머니품으로 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고 동포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신 수령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또 한페지를 번지면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총련동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며 온밤을 지새우시던 수령님의 숭고한 모습, 조국을 방문한 동포들을 만나는것이 제일 기쁘다시며 총련일군으로부터 상공인, 지식인, 문화체육인, 청소년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남녀로소모두를 다 만나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기념사진도 함께 찍어주시던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오는것만 같다.

도서에 있는 《력사의 날—1952년 12월 2일》에는 이런 잊지 못할 이야기가 수록되여있다.

삼천리강토가 가렬처절한 전쟁의 불길속에 몸부림치던 그때 애국적인 재일조선인활동가들이 파견한 련락원을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존망의 기로에 놓여있던 재일조선인운동을 두고 그처럼 마음쓰시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사람은 남의 나라에서 살아도 우선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위하여 살며 일해야 한다는 주체의 진리를 밝혀주신 이날이 있어 사대와 민족허무주의의 진창에 깊숙이 빠졌던 재일조선인운동은 자기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고 비로소 옳바른 발전의 길에 들어설수 있게 되였다.

하기에 주체44(1955)년 5월 25일 주체의 산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가 자기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하던 력사의 그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자기들에게 항상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며 행복과 번영의 길로 령도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충심으로부터의 감사와 최대의 영예를 드리는 편지를 대회의 이름으로 삼가 올리였었다.

세계해외교포운동의 선구자, 공화국의 자랑으로 온 세상이 부러워 경탄해마지 않는 총련이 그토록 위력한것은 무엇때문인가.

언제인가 어느한 나라 대통령이 수령님을 만나뵈온 기회에 조선에서는 해외교포들로 조직을 뭇고 그들을 튼튼히 묶어세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는가고 말씀올린적이 있었다고 한다.

도서에는 그때를 회상하시며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수록되여있다.

《그래서 나는 해외에 사는 교포들을 묶어세우려면 조직을 무어야 하고 또 조직을 뭇자면 핵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복숭아에 비유해서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복숭아는 가운데에 핵과 같은 씨가 있고 그 주위에 굳은 껍질이 있으며 겉에는 살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외에 사는 자기 교포들을 묶어세우려면 우선 핵심이 있어야 하고 핵심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묶어세워야 한다. 무화과와 같이 물렁물렁한 조직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랜 세월 심혈을 기울여 키워오신 재일조선인운동의 튼튼한 핵심력량과 어머니조국에 대한 불타는 충정의 마음을 안고 그 주위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동포들은 총련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였음을 도서의 《복숭아이야기》는 말해주고있다.

도서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조국을 알고 혁명을 하자면 백두산에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조국을 방문한 재일조선인축하단 성원들에게 백두산답사길을 열어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고 주체79(1990)년 4월 총련일군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지난날 조국이 없었던탓에 갖은 민족적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오던 재일동포들이 공화국이 있기에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떳떳하게 살고있다고, 무엇보다 귀중한것이 조국이라고 하시며 열렬한 조국애를 심어주신 이야기도 있다.

어찌 그뿐인가.

조국을 방문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금강산에 깃든 전설도 이야기해주시고 음식은 조선음식이 제일이라고 하시며 동포상공인들의 가슴마다에 민족의 넋과 향취를 부어주신 뜻깊은 이야기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교육의 대화원을 마련해주시고 뜨거운 사랑과 은정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주신 이야기들도 감동없이 읽을수 없는 대목이다.

공화국이 전후 재더미를 헤치고 창조와 건설을 하면서 한푼의 자금도 귀하였던 1957년의 그해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사업을 단순히 교육사업이라고만 보아서는 안된다고, 그것은 민족을 도로 찾고 민족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민족적애국사업이라고 하시며 재일동포자녀들에게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고 이 사업을 항구적인 국가적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에 의해 허물어져가는 교실 아닌 《교실》에서 백묵과 종이마저 부족하여 배움의 꿈을 포기했던 동포학생들이 기쁨과 희망속에 배움의 창가에 들어섰고 총련의 자랑 조선대학교가 이역의 하늘아래 세계유일의 해외교포대학으로, 총련민족간부양성의 원종장으로 거연히 솟아 빛나게 되였다.

도서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정부는 재일동포들이 조국에 돌아와 새 생활을 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줄것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자기의 민족적의무로 생각한다고 하시며 귀국의 배길을 열어주시고 재일동포들을 태워올 배는 조국의 한 부분이라고 하시며 《만경봉》호의 설계로부터 의장품, 식탁에 오르는 료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신 이야기도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믿어주시고 아껴주시며 내세워주신 이야기들은 또 얼마나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는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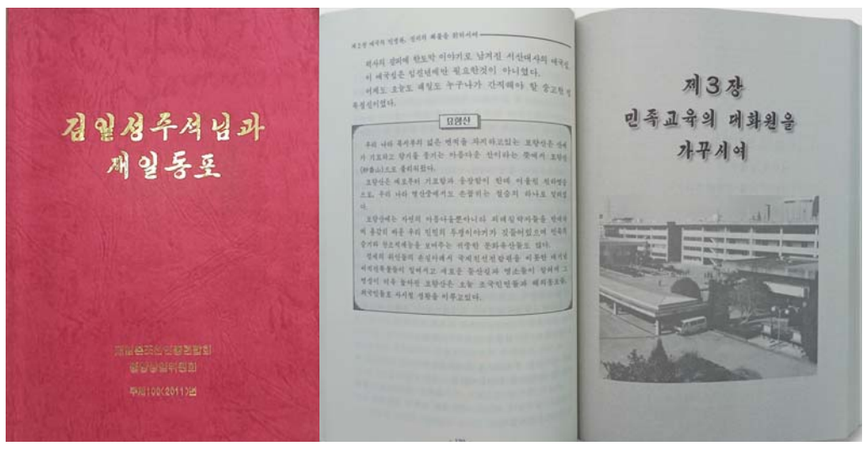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사랑이 있어 오래동안 병고에 시달리던 총련일군이 대지를 활보하게 되고 조국건설에 특색있게 공헌한 총련조직들과 단체, 사업체, 개별적동포들이 각종 국가훈장들과 명예칭호들을 수여받고 누구나 쉽게 오를수 없는 영생의 언덕에서 오늘도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참된 애국자의 삶을 누리고있다.

총련이 그처럼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변함없이 주체의 길, 애국애족의 길을 꿋꿋이 이어올수 있은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을 모시였기때문임을 감동깊은 력사의 화폭들과 더불어 소중히 새겨주는 도서 《**김일성**주석님과 재일동포》!

식민지노예로 일본땅에 끌려가 인간이하의 학대와 멸시, 굶주림에 시달리던 재일동포들에게 민족해방의 기쁨과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된 존엄과 영예를 안겨주시고 애국애족의 참다운 동포조직인 총련을 무어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 높이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의 로고와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재일동포들과 공화국인민들은 굳게 확신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오늘은 물론이고 앞날도 언제나 밝고 창창하다는것을.

김 명 국



주체적인 전법으로 싸워야 한다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여

주체39(1950)년 8월초 전선사령부가 자리잡고있는 수안보를 찾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일군 및 전선련합부대 지휘관, 문화일군 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안보에서 전선용사들을 만나니 대단히 기쁘다고, 전선사령부를 전선가까이에 있는 수안보로 옮긴것은 잘한 일이라고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전선련합부대들의 금후 군사행동방향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먼저 인민군부대들이 공화국에 대한 적의 불의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반공격으로 넘어간지 1개월이 경과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기간에 영용한 인민군장병들은 련속적인 타격으로 적을 소탕하고 남조선의 넓은 지역을 해방하였다고 언급하시며 인민군전투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 전쟁행정에서 나타난 결함과 그 표현, 원인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여러가지 결함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일부 군사지휘관들이 현대전의 요구와 산악이 많은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군사규정과 전투경험을 기계적으로 군사행동에 적용한데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사대와 교조가 있는 곳에서는 창조가 질식되고 실패와 곡절이 따르게 되며 누가 누구를 하는 치렬한 전쟁터에서는 값비싼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이다.

하지만 당시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은 조선의 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전법대로 싸울 대신 다른 나라의 전술규범과 전쟁경험에 매달리면서 적들로 하여금 력량을 재집결하여 인민군대의 진격에 저항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다.

최고사령부의 전략적의도를 받들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결함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미제가 대병력을 증강하고있는 조건에서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포연이 자욱한 수안보에까지 나오시여 항일혁명전쟁의 전 기간 심장속에 간직하고 구현해오시였으며 해방된 조국땅우에 인민의 새 나라를 세우시면서 더욱 굳히신 자주의 길만이 승리의 길이고 사대는 망국의 길이라는 철리를 다시금 천명하신것이였다.

본사기자 림 광 훈

◎ 세계가 공인한 불세출의 위인 ◎

《세계혁명과 뿔럭불가담운동의 위대한 령도자, 희세의 정치대가》

력사의 풍파속에서도 시대의 조종간을 틀어쥐시고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은 이전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대통령 찌또의 가슴속에서도 끝없이 물결쳤다.

주체64(1975)년 6월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찌또대통령과 회담을 하실 때 있은 일이다.

회담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선로동당과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사이에는 의견상이가 없고 단결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당이 다 자주성의 원칙을 견지하고있는것이라고 하시였다.

찌또대통령은 몹시 감동된 기색으로 존경하는 **김일성**동지의 말씀은 참으로 옳은 말씀이라고, 주석동지의 말씀을 통하여 자주성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견지하는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였으며 공산주의자들은 오직 자기 나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할 때에만 승리할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할수 있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찌또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과 여러 차례 상봉하면서 그이의 천출위인상에 매혹되고 그이의 남다른 친화력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더우기 제기되는 문제마다 깊은 뜻과 심오한 내용을 담아 말씀하시는 수령님의 뛰여난 웅변술과 해박한 지식에서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정치적원숙성을 느꼈으며 뜨거우면서도 섬세하고 대범한 성품에서 고결한 도덕의리와 사심없는 우정을 느끼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금같은 고견을 받아안으며 그는 수령님을 자기가 리상으로 그려보던 가장 대바르고 정치철학이 특출하며 자존심이 높고 리치에 밝은 위인으로, 세계혁명과 뿔럭불가담운동의 위대한 령도자, 희세의 정치대가로 높이 칭송하면서 《나는 수많은 나라 국가수반들을 만나보았는데 만나뵙자마자 그처럼 빨리 의사가 통하고 친근해진분은 오직 **김일성**주석동지뿐이였습니다.》고 자기의 매혹된 심정을 그대로 털어놓았다.

하기에 웬간해서는 다른 나라에 대한 방문을 잘하지 않는다던 찌또대통령은 주체66(1977)년 8월 85살의 고령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조선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탁월한 령도자로 높이 칭송하였다.

리 일 현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진리의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2)

1956년 3월 《청년문학》창간호에 실린 단편소설 《두번째 대답》은 소설창작의 첫 발자욱을 내디딘 석윤기선생의 개성적인 얼굴을 단번에 뚜렷이 드러냄으로써 문단의 이목을 집중시키였다.

단편소설 《두번째 대답》을 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싶어하였다.

그가 남조선에서 의용군으로 입대하여 전승의 날까지 용감하게 싸운 20대청년으로서 병원침상에 누워있는 전상자라는것이 알려지자 그의 소설이 일으킨 파문은 몇배로 더 커지였다.

석윤기선생은 전쟁 3년 전기간 자동차를 운전한 수송전사였다. 전쟁의 불비속을 헤치며 맡겨진 수송전투임무를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용감한 수송전사》, 《영웅적운전수》로 전선신문에까지 소개된 위훈자였다. 그런데 전승의 소식을 듣고 전우들과 함께 만세를 웨치던 그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일어설수 없는 몸이 되여버리였다. 의식을 잃은 석윤기선생을 진찰하던 야전군의소 군의들은 그만 아연실색하여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이미 오래전에 갈비뼈가 온통 으스러졌던데다 석대는 아예 잘라낸 상태였다. 그리고 강한 외부적타격을 받은것으로 보아지는 척추는 당장 동강날듯한 위험지경에 있었다.

군의들은 사나이의 강인한 정신에 감동되여 눈물을 머금고 그를 지체없이 후방깊이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병원생활이 3년이나 흘러 1956년에 이르렀다.

어느날 석윤기선생은 당시 이 병원 원장사업을 하던 항일혁명투사 림춘추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심장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

주체40(1951)년 6월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안으신 그 바쁘신 환경속에서도 문학예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시기 위해 작가, 예술인들을 만나주시였다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작가, 예술인들에게 작품에서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애국심은 그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인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의 강토와 력사와 문화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그것은 또한 자기 고향과 고향사람들에 대한 애착심, 자기의 부모처자에 대한 애정에서도 표현되는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석윤기선생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이 가슴에 차넘치였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수 있었던 기본요인이 무엇이였는가를 순간에 깨닫게 되였다.

그는 쓰고싶었다. 우리의 애국심과 그 무진장한 위력에 대하여 쓰지 않고는 견딜수가 없었다.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 창작에 달라붙었다. 선생은 창작을 곧 조국을 위하여 병사가 벌리는 전투로 간주하였다. 이렇게 씌여진것이 단편소설 《두번째 대답》이다.

이 소설은 발표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그것은 이 작품이 전쟁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무기냐? 사람이냐?》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생동한 형상으로 얻어내였기때문이였다.

군복입은 처녀의 용감한 모습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앞에 무릎을 꿇은 포로가 하는 두번째 대답은 곧 영웅적인 조선인민앞에 참패를 당한 미국이 찾아야 할 교훈적인 대답인것이다.

후날 단편소설 《두번째 대답》을 읽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 작품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생활을 취급하면서 불과 몇시간동안에 두명의 등장인물들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대한 힘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철학적깊이가 있게 밝혔다고 하시면서 현대전쟁의 운명은 무기나 기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군대와 인민의 전투도덕적품성, 수령의 사상에 의하여 하나로 단합된 군민의 정치사상적단결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작가 석윤기는 단편소설 《두번째 대답》을 내놓은데 뒤이어 중편소설 《전사들》의 구상을 무르익히고 불가항력적인 의지로 본격적인 창작전투에 진입하였다.

그는 병석에서 소설을 창작하였다.

그는 붓을 달리기 전에 이런 구호를 자기앞에 내세웠다.

《한편의 작품창작—이것은 한번의 돌격전이다.》

드디여 중편소설 《전사들》이 완성되여 출판배포되자 독자들과 문단에서는 또다시 파문이 일어났다.

석윤기선생의 《두번째 대답》을 대할 때부터 신인작가의 작품에 비낀 명석한 철학적견해와 독특한 창작기교를 범상치 않게 여겨보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도 중편소설 《전사들》을 깊은 관심속에 보아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1(1962)년 9월 어느날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앞에서 장시간에 걸쳐 중편소설 《전사들》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 중요한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관심속에서 석윤기는 보다 더 광활한 소설의 대지에로 활보해갔다.

석윤기선생은 1961년부터 그리도 열망하던 현역소설가로 되였다.

전쟁물주제의 새로운 소설을 내놓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던 선생은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무렵 지금껏 말썽을 일으키던 척추결핵이 갑자기 악화되였다.

작가는 생명을 잃을번하는 무서운 순간을 동반하는 대수술을 세번씩이나 겪어야 했다.

그러나 석윤기선생은 이런 형편에 직면해서도 창작의 붓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 말그대로 초인간적인 의지와 열정을 기울인 창작과정이였다.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 1부를 내놓은 다음 2부의 초고를 다 쓰고 추고하는 과정에 석윤기선생은 자기가 지금 무엇인가 분명히 놓치고있다는것, 놓쳤다기보다 모르고 작품을 창작하고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골몰하게 되였다. 민족의 위대한 력사, 민족의 존엄과 긍지, 민족의 창창한 래일을 형상함에 있어서 근본을 놓치고있는것같은 허전함이 그를 괴롭히군 하였다. 몇달을 두고 그 대답을 찾아 모대겼지만 생각만 더 깊어지고 수없이 가지를 뻗는 상념속에서 헤여날수가 없었다.

그의 이러한 모대김은 탁월한 스승의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풀릴수 있었다.

본사기자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철페를 요구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당국의 부당한 차별정책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얼마전 제13차 중앙어머니대회 참가자들이 《조선학교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존중하며 민족교육의 제도적보장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요청활동에는 도꾜와 가나가와현, 사이다마현, 지바현 등의 녀성동맹일군들과 동포녀성들이 참가하였다.

녀성동맹 도꾜도본부 강혜영 자녀부장이 요청서를 랑독하였다.

요청서는 일본정부가 조선학교 아이들에 대한 온갖 차별을 즉시 철페할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즉시 적용, 조선유치반에 대한 유보무상화제도의 적용, 조선학교와 학부모들에 대한 지방자치제보조금지급 장려, 조선학교의 력사에 대한 존중과 민족교육의 보장 등을 촉구하였다.

이어 여러 어머니대표들이 발언하였다.

녀성동맹 가나가와현본부 백주비부위원장은 《일본 각지 어머니들이 민족교육을 지켜낼 굳은 결의를 다짐하면서 이 요청서를 채택하였다. 앞으로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자기 민족에 대하여 당당히 말할수 있는 사회를 꾸릴것을 요구한다.》고 말하였다.

다른 대표들도 《아이들이 조선학교에 다녔으나 한번도 보조금을 받아본적이 없다.》, 《일본정부가 각종 교육제도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하고 민족차별정책을 실시하고있으나 우리 학생들은 씩씩하게 자라고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번 아이들의 모습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차별철페를 위한 행동에 나설것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정부가 조선학교를 무상화제도에서 배제하고도 조선학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억지주장을 늘어놓고있다고 하면서 《차별하는측은 늘 차별을 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조선학교나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알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송혜숙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부장은 유보무상화의 대상에서 조선유치반이 의도적으로 배제된데 대하여 비난하면서 《아이들의 배울 권리는 인권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대한 차별풍조를 조성하고있다.》고 하면서 규탄하였다.

요청활동에 참가한 일조우호녀성네트워크 대표는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일본은 어째서 조선학교학생들을 차별하는가에 대하여 거듭 질문을 받았다.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철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도발자의 정체를 가리우려는 대결광대극

윤석열역적패당이 6.25전쟁 73년을 계기로 각종 광대극을 벌려놓고 반공화국대결기운을 고취하였다.

역적패당은 6월 25일 서울에서 《6.25전쟁기념식》이라는것을 벌려놓고 강력한 《자주국방》으로 안보를 지키겠다, 미국,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더욱 단단해질것이라고 줴쳐댔다.

이보다 앞서 24일에는 남강원도 춘천에서 《기념행사》라는것을 벌리였으며 22일에는 《6.25출격조종사초청행사》를, 23일에는 《함안경찰승전기념관》준공놀음을 벌려놓았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역도는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시회》라는것을 벌려놓고 《힘에 의한 평화》를 줴쳐대였다.

역적패당이 6.25전쟁 73년을 계기로 이처럼 각종 광대극을 벌려놓고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린것은 저들의 침략적, 도발적정체를 가리우고 지난 전쟁에서 당한 쓰디쓴 참패를 《승전》으로 미화분식해보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로이다.

세계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지난 조선전쟁은 미국이 전 조선을 병탄하고 나아가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리승만괴뢰도당을 사촉하여 일으킨 침략전쟁이였다.

하지만 세인이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했던 조선전쟁에서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은 비참한 참패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은 미국상전과 함께 공화국의 위대한 7.27전승신화를 뒤집고 저들의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켜보려고 가소롭기 그지없는 각종 광대극들을 벌려놓으며 대결광기를 부려댄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만사람의 쓰디쓴 웃음을 자아내는 해괴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지난 조선전쟁에서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대참패를 당한 수치로 하여 가슴앓이를 하던 나머지 이제는 정신착란중에 걸려 갖가지 황당무계한 《기념행사》라는것을 벌려놓고있는 역적패당의 광태야말로 실로 가소롭고 가련하기 그지없다.

역적패당이 제아무리 흑백을 전도하며 오그랑수를 써도 패배자로서의 치욕스러운 오명을 벗을수는 없다.

발버둥질치면 칠수록 차례지는 수치가 더 커진다는것을 전혀 모르는 천치, 저능아들이 바로 윤석열역적패당이다.

역적패당이 지난 전쟁에서 당한 수치와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리며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을 지르려 하고있지만 침략자, 도발자들이 가닿게 될 종착점은 파멸의 무덤이며 거기에서 듣게 될것이란 비참한 장송곡뿐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파쑈의 란무장, 최악의 인간생지옥

남조선에서 희세의 파쑈악법인 《반공법》이 조작되였던 때로부터 62년이 지났다.

알려진것처럼 5.16군사쿠데타로 권력의 자리를 강탈한 박정희역도는 1961년 7월 3일에 정치적반대파들과 인민들을 더욱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남조선을 파쑈독재가 살판치는 암흑천지로 만들기 위해 악명높은 《보안법》보다 《법》의 적용범위가 더욱 확대된 파쑈악법인 《반공법》을 조작하였다.

《반공법》 1조, 2조에는 《보안법》 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처벌》할것을 규정하였는데 《반국가단체》의 활동이 어떤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또한 《반공법》의 4조 1항은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렬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리롭게 하는 행위를 한자》를 《범죄》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고무》, 《동조》라는 개념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기타의 방법》이라는 표현의 내용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법》이 되여 파쑈도당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처형할수 있게 되여있었다.

이와 같이 《반공법》은 남조선에 조작된 《반공》파쑈독재체제를 《법》적으로 담보하고 애국적민주력량을 탄압하는 극악무도한 악법이였다.

당시 남조선인민들이 《보안법》과 《반공법》을 가리켜 사소한 롱담, 취중의 발언조차도 《리적행위》, 《간첩행위》로 몰아 즉결심판에 넘기는 최악의 《법》이라고 하여 《막걸리보안법》, 《막걸리반공법》이라고 규탄, 조소하고 이 전대미문의 반인권악법에 의해 얽매인 남조선사회를 저주하여 눈이 있어도 볼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할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들을수 없는 암흑사회라고 단죄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후 《반공법》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의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개악되였으며 파쑈살인광 전두환역도에 의하여 파쑈악법의 절정을 이루는 새 《보안법》에 흡수개악되였다.

남조선에서 《반공법》이 조작되고 그것이 《보안법》에 흡수개악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력사의 흐름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야 할 희세의 악법들이 여전히 살아 기승을 부리며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과 고통속에 몰아넣고있다.

윤석열역도에 의하여 오늘 남조선은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가 깡그리 말살된 세계최악의 인간생지옥으로 화하였다.

역도의 집권후 조선반도평화를 주장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의로운 단체들과 인사들이 악법중의 악법인 《보안법》의 쇠사슬에 묶이워 고통을 당하는 비극적현실이 펼쳐지고있다. 지어 온 세계가 찬양하고 구독, 연구하고있는 절세위인의 회고록을 출판보급한 단체의 대표와 학자를 비롯하여 정의와 진리를 지향하는 사람들까지 《보안법》의 희생물이 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여 떨쳐나선 《민주로총》과 《전국보건의료로조》를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들에도 《리적단체》감투가 씌워지고 윤석열퇴진운동을 벌리는 《초불중고생시민련대》 역시 《종북좌파단체》로 매도되여 탄압당하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남조선의 력대 파쑈독재자들을 릉가하는 극악무도한 파쑈광들이다.

오늘 《민생파탄 못살겠다. 윤석열 퇴진하라!》, 《정치깡패, 검찰독재 윤석열타도!》, 《우리가 주인이다, 초불이 이긴다》, 《〈국민의 힘〉 해체하라!》의 함성이 남조선땅을 매일같이 진감하고있는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남조선을 참혹한 인간생지옥으로 전락시킨 윤석열역적패당이 선행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비참한 종말을 고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본사기자 박철남

정세긴장을 부채질하는 무분별한 망동

최근 남조선의 《국방부》와 《환경부》것들이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된 미군의 고고도요격미싸일체계 《싸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라는것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고 한다.

보고서에는 《싸드》레이다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가 인체와 주변환경에 아무런 부정적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것이 《확증》되였다는 내용이 기술되여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각계층속에서는 《싸드》기지환경영향평가놀음이 극히 형식적인것이고 조작된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고 한다.

특히 《싸드철회성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은 《싸드》레이다출력수치도 공개하지 않은 환경평가를 믿을수 없으며 인체와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전자기파수치도 조작된것이라고 반발하고있다.

《싸드》의 전자기파가 인체와 주변환경에 아무런 부정적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역적패당의 이번 《싸드》기지환경영향평가놀음은 민심에 대한 파렴치한 기만행위이며 저들의 친미굴종행태를 합리화하고 《싸드》기지의 정상운영으로 반공화국전쟁대결기도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추악한 망동이다.

미국이 《싸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인것은 공화국을 선제타격하는것과 함께 저들의 세계지배전략에 따라 전략적경쟁자들인 조선반도 주변나라들을 제압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보려는데 있다.

미국에 의존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발광하고있는 남조선호전광들은 미국의 이러한 위험천만한 기도에 추종하여 《싸드》를 끌어들임으로써 남조선을 공화국을 침탈하기 위한 핵전초기지로, 조선반도 주변나라들의 타격과녁으로 만들었다.

주변나라들이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싸드》배치책동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면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역적패당의 《싸드》기지운영책동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적긴장이 더더욱 격화되고 남조선의 안보위기 역시 한층 심화되게 될것이다.

현실은 조선반도와 주변정세악화의 주범은 다름아닌 미국과 그 하수인인 윤석열역적패당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황금숙

무지, 무능이 초래한 비난과 배격

최근 윤석열역도가 무지무능한 행태를 련이어 드러내보여 남조선 각계의 비난과 조소를 받고있다.

역도의 교육에 대한 무지한 발언이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얼마전 역도는 대학입학능력을 측정하는 시험과 관련하여 학교들에서 배워주지 않는 난도높은 문제들을 시험문제로 내지 말아야 한다고 줴쳐대였다.

역도의 이 발언은 발전하는 과학과 교육실태를 너무도 모르고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저와 같은 무능아, 저능아로 만들겠다는것이나 다름없는 무지스러운 발언이여서 수험생들과 부모들은 물론 각계층속에서 거센 반발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윤석열의 무지가 교육분야까지 뻗쳤다.》, 《일단 들이받고 보자는 윤석열식국정운영이 또 사고를 쳤다.》, 《지독한 무능과 무책임의 발로이다.》, 《앞으로 또 어떤 혼란을 빚어낼지 걱정스럽다.》, 《민심을 얻어보려고 굳은 머리를 짜보았지만 오히려 교육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렸다.》, 《멍청한자가 부지런하면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치기마련이다. 윤석열은 원래부터 변명과 거짓말, 〈남탓〉이 체질화되여있다.》라고 비난하며 개탄하고있다.

지어 보수세력내에서도 역도를 《양치기소년》에 비유하면서 《단세포적인 발상이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 《본인의 무지를 인정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조소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윤석열역도의 외교적무능으로 대외적고립과 경제파국이 심각해지고있다는 비난도 터져나오고있다.

윤석열역도는 집권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에 적극 추종해왔다. 특히 조선반도 주변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압박책동의 앞장에 서서 날뛰고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내외의 강력한 규탄을 받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야당들과 언론, 전문가들은 《스스로 신랭전을 만드는 무능함에 너무 참담하다.》, 《악화된 경제, 외교상황은 윤석열의 총체적무능, 무책임, 무대책이 부른 참극이다.》, 《유럽과 일본까지도 경제적실리를 차리고있는데 윤석열 〈정부〉만 반대로 가고있다.》, 《스스로 경제를 망가뜨리는것이 바로 현 〈정권〉의 실력이다.》, 《미국이 겉으로는 중국과 경제전쟁을 벌리지만 은근히 무역규모를 확장하고 물밑대화까지 하고있다.》, 《미국이 회초리를 들라고 하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사냥개외교에 빠져있다.》, 《토끼사냥이 끝나면 사냥개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말이 뻔하다.》고 비난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남조선 각계에서는 계속 드러나는 윤석열역도의 무지무능이 《정권》파멸로 이어질것이라는 주장도 크게 확대되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물론 보수패거리들속에서도 《윤석열의 지독한 무지무능이 정치의 실종, 철학과 력사의식의 부재,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정치화 및 사유화를 초래하였다.》, 《사회가 엉터리풍조로 병들어가고있다.》, 《윤석열이 변하지 않으면 〈정권〉이 위태로워질것이다.》는 비난과 아우성이 울려나오고있다.

무지무능에 객기가 더해지면 비참한 파국이 초래되기 마련이다.

남조선 각계가 비난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처럼 윤석열역도의 집권이후 꼬리를 물고 산생된 외교참사, 날로 우심해지는 안보불안, 걷잡을수 없는 경제파국과 사회적혼란은 전적으로 역도의 무지무능과 무분별한 망동이 초래한 필연적재앙이다.

불행과 고통, 재난의 화근인 역도의 퇴진을 요구하여 남조선 각계층이 일떠선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본사기자 김광혁

단평 상전이 주구에게 하사한 《선물》

얼마전 남조선의 어느한 인터네트신문에 미국무장관이 윤석열역도에게 주었다는 《선물》사진이 실렸다고 한다.

그 《선물》이라는것이 뭔가 하니 개의 목사리와 가죽끈이다.

남조선항간에서는 미국의 《충견》인 윤석열역도에게 꼭 들어맞는 《선물》이라는 조롱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사실 역도가 《대통령》감투를 쓰고 한짓이란 친미굴종뿐이다. 상전의 호출을 받고 악의 제국을 찾아가서는 조선반도에 핵전쟁을 몰아오는 《확장억제력》을 구걸하고 억대의 대미투자를 섬겨바쳤으며 미국의 세계패권정책실현의 돌격대역할을 자청하였다.

뿐만아니라 미국국회에서 서투른 영어를 씨벌이며 더없는 친미노복임을 증명했는가 하면 백악관의 먹자판에서는 《아메리칸파이》라는 노래를 《류창》하게 불러대여 상전의 박수까지 받았다.

그뿐인가. 역도는 미국의 지령에 따라 천년숙적인 섬나라것들과 관계개선의 명목밑에 입을 맞추는 짓거리도 서슴지 않았다.

하기에 내외가 역도를 가리켜 미국의 삽살개라고 조소하고 규탄하고있는것이다. 아마 미국상전도 자기의 바지가랭이를 감돌며 따르는 윤석열역도를 그렇게 여기고있을것이다.

그래서 역도에게 개목사리와 가죽끈을 《선물》로 준것이다.

역도가 받은 개목사리와 가죽끈, 그것은 남조선력사에 또 하나의 비화로 기록될것이다.

배영일

《우리의 삶과 생존, 자존심을 지켜내자!》

—남조선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 강력히 전개—

지난 3일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대통령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권》퇴진을 위한 2주일간의 총파업투쟁에 들어간다는것을 선포하였다.

《민주로총》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로동자탄압과 민생, 민주, 평화파괴에 날뛰고있다, 120만명의 조합원이 단결하여 윤석열《정권》을 몰아내고 로동자중심의 《민주주의》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총파업투쟁이 윤석열퇴진투쟁을 대중화하는 방아쇠로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로조탄압중단과 《로동조합법》개정, 일본의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해양투기중단, 최저임금인상과 공공료금인상철회, 공공의료확대, 로동시간단축, 언론 및 집회, 시위의 자유보장 등을 이번 투쟁의 핵심과제로 제기하였다.

《민주로총》지도부가 총파업을 선포한지 몇시간만에 《민주로총》산하 《택배로조》조합원 1 500여명과 《써비스련맹》조합원 2 500여명은 서울에서 각각 《전국택배로동자대회》와 《써비스련맹 특수고용로동자사전파업대회》를 열고 시내의 주요도로들에서 행진을 벌리는것으로 총파업투쟁의 서막을 열었다.

뒤이어 부산, 울산, 청주를 비롯한 각 지역들에서도 《민주로총》산하 로조들은 총파업결의대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역도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징의식과 모터찌클집단시위, 대규모거리행진, 구호선창 등의 다양한 투쟁을 벌리면서 기세를 올렸다.

한편 진보운동단체들은 기자회견, 성명 등을 통해 재벌들과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굴욕적인 친미, 친일정책으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짓밟는 윤석열역적패당을 심판하기 위한 《민주로총》의 총파업투쟁을 지지성원하였다.

본사기자

불치의 구걸병

얼마전 윤석열역도가 해외를 돌아치며 《북의 불법적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니, 《지역의 가장 시급한 안보위협에 대한 공조》이니 하고 떠들면서 반공화국압박공조를 구걸하였다.

외세의존병자, 반공화국공조구걸병자의 역겨운 추태가 아닐수 없다.

윤석열역도가 집권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세에 반공화국공조를 비럭질하는 쪽박외교에 매달려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역도가 기신기신 찾아다닌 나라들과 행각날자는 서로 다르지만 한가지 공통적인것은 찾아간 모든 나라와 지역들에서 반공화국압박공조를 구걸한것이다.

특히 윤석열역도는 미국과 일본을 행각하면서 상전들과 결탁하여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실현해보려고 갖은 추태를 다 부리였다.

고질적인 반공화국공조구걸병, 외세의존병에 걸린자가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해괴한 짓거리이고 체면도 수치도 모르는 천하에 둘도 없는 사대매국노의 광태라 하지 않을수 없다.

최근 역도가 해외행각에서 각종 회담을 벌려놓고 저들의 대결정책에 대한 지지와 반공화국압박공조를 실현해보려고 구접스럽게 놀아댄것은 불치의 병인 반공화국공조구걸병이 또다시 발작한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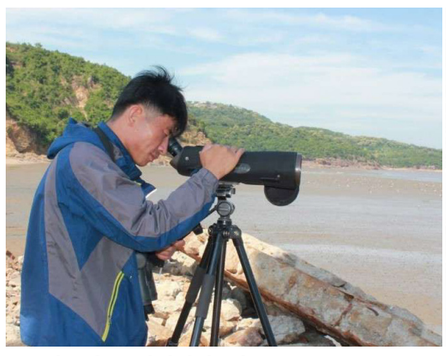
그것은 반공화국압살을 구걸하는 쪽박외교로 불가극복의 통치위기, 안보위기에서 벗어나보려는 대결미치광이, 희세의 역적의 가소로운 살구멍찾기로서 제명을 다 산 반역아의 가련한 처지만을 보여줄뿐이다. 사대매국과 반공화국대결로 얻을것은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밖에 없다.

이것은 사대매국과 반공화국대결을 생존방식으로, 집권유지의 만능처방으로 삼다가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한 력대 남조선위정자들의 추악한 행적이 보여주는 교훈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열렬한 애국심과 탐구심으로

—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에서 —



공화국의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의 연구사들이 높은 애국심과 탐구심을 지니고 나라의 생물다양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곳 연구사들은 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는데서 동식물자원과 그 서식조건을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과 희귀한 동식물들을 비롯한 생물품종들을 보호하는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고 전국각지의 동식물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료해장악하고 적실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에 동서해연안의 주요철새보호구들에서 계절적조건에 따르는 철새들의 분포상태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호와 리용에 필요한 조사평가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사기간 이들은 근 80종에 10여만마리의 물새들과 그중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10여종에 4 000마리이상의 조류를 관찰하였으며 동서해연안의 여러 철새보호구가 동아시아—오세안주철새이동경로망대상지로서 철새들의 도중서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자연보호사업의 과학화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사들은 백두산, 금강산지구 등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된 지역들과 습지생물다양성중점지역들에 대한 계획적인 현지조사를 통하여 위기동식물들의 분포상태를 밝히면서 생물다양성보호와 자원리용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수 있게 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지리정보체계기술과 위성화상해석기술에 의한 생물다양성평가방법 등을 연구도입하여 생태환경보호사업의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나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또한 국가망을 통한 과학기술자료보급과 정보봉사를 적극화하면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여나가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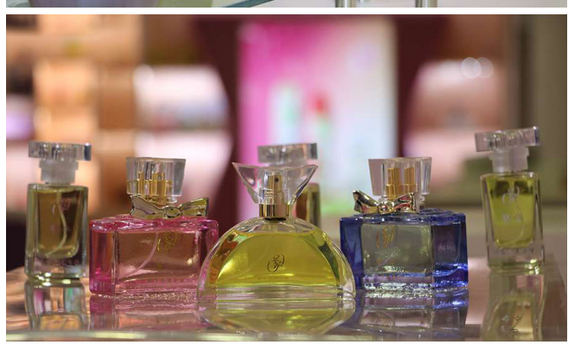
오늘도 이곳 연구사들은 나라의 생물다양성을 적극 보호하는데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이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천연향료개발에 힘을 넣는다

풍치수려한 대동강줄에 자리잡은 평양향료공장에서 나라의 식료공업과 화장품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천연향료들을 개발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산과 들에서 자라는 식물의 꽃과 잎, 열매, 씨 등에서 수십종의 천연정유를 추출하여 자체의 힘과 기술로 향기롭고 건강에도 좋은 천연향료들을 개발하고있다.



나라의 향료공업발전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책무를 다해갈 불같은 열의안고 공장에서는 이미 개발한 천연정유추출기술을 보다 완성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있다.

이들은 천연정유를 리용하여 인민들의 기호에 맞으면서도 향기의 지속시간이 긴 여러가지 조합향료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개발하기 위해 지혜를 합쳐가고있다.

공장에서 개발한 딸기향, 오미자향, 박하향, 사과향, 우유향과 같은 수십가지에 달하는 식용향료들과 방안향수, 위생실향수 등 갖가지 향수들은 평양시인민소비품전시회를 비롯한 여러 전시회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본사기자

농업생산에 이바지하는 기상정보봉사

현대농업의 발전은 기상예보의 발전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공화국의 기상수문국 중앙기상정보기술사에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알곡생산에 이바지할수 있는 농업기상전문봉사프로그람 《농업기상》 2.0을 개발하였다.

이동통신망을 리용하여 기상정보들을 신속히 봉사할수 있는 《농업기상》 2.0은 리(동)를 단위로 15일예견기의 기상예보봉사를 진행한다.

사용자들은 재해성기상예보와 농업기후자료들에 대한 순별, 월별분석자료도 봉사받을수 있다.

이동통신망리용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사용자들은 국가자료통신망을 리용하여 자료봉사를 받을수 있다.

본사기자

공화국의 품에서 삶을 빛내인 문학예술인들

가수 권원한

권원한은 북변의 산간고을 회령에서 아홉 남매의 맏이로 태여났다.

어려서부터 그가 노래를 부를 때면 어른들은 잘 부른다며 혀를 차군 하였고 학교에서도 연예공연이 있을 때면 그를 먼저 찾았다.

보통학교에서 피아노기초와 성악창법을 배울 때 천부적인 재능을 알아본 녀교원은 그를 녀자중학생들의 성악콩클에 참가시켰다.

콩클에서는 관례를 깨고 벽촌에서 온 그에게 1등상이 수여되였다.

이를 계기로 그는 어느한 녀자전문학교 음악과에 입학할수 있었다.

졸업후 그는 남조선에서 음악교원으로 있으면서 교향악단 독창가수로 무대에도 나섰는데 《노래의 녀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가극 《춘향전》에 주인공으로 출연하여 인기를 끌었다.

사람들은 그가 출연하는 가극을 보기 위해 시공관(극장)으로 앞을 다투어 가군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외세가 살판치는 남조선땅에서 참다운 음악가가 될 희망은 한갖 헛된 꿈에 불과했다.

하여 그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품을 찾아 북행길에 올랐다.

1950년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노래를 부르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그는 다음해 베를린에서 진행된 세계청년학생축전에도 참가하였다.

축전이 끝난 후 있은 외국순회공연에서 그의 독창은 류달리 각광을 받았다.

그가 노래를 부르면 관중들은 엄지손가락을 펴보이며 재청을 요구하였다.

전후에도 그는 독창가수로 활약하면서 민족가극들인 《콩쥐팥쥐》와 《견우직녀》에서 주역을 맡아 형상하였다.

그는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와 《금강산의 노래》의 녀주인공들을 비롯한 수많은 성악배우들을 훌륭히 키워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여든번째 생일을 맞는 그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시고 로가수의 독창회를 열도록 해주시였다.

본사기자

관심을 모으는 식물보존공예품

지난 3월 평양에서 진행된 제36차 평양시과학기술축전에서 참관자들에게 류다른 감흥을 안겨준 식물보존공예품이 지금도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식물보존공예품은 말린 식물의 색갈, 형태가 살아있는 식물과 꼭같아 자연의 정서를 그대로 안겨줄뿐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에 좋다.

말린꽃뿐 아니라 풀잎, 나무가지, 뿌리 등 식물체의 모든 부분을 재료로 리용하는 식물보존공예품은 예술성이 높아 볼수록 정서적감흥을 불러일으키며 식물의 고유한 성질을 그대로 담고있어 실지 식물을 보는 느낌을 주고있다.

종류가 다양한 식물보존공예품은 음이온과 먼적외선을 내보내는 전기석을 도입하여 사람들의 문화정서적요구와 건강증진에도 이바지하고있다.

식물보존공예품들에는 화분식물을 형상한 공예작품들과 자연풍경을 형상한 액틀작품들도 있다.

다양한 식물재료들을 가지고 다각적인 부각처리수법을 리용하여 만든 공예 《소철나무》, 풍경화 《10월의 숲속길》, 정물화 《어머니날을 맞으며》 등은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고있다.

독특한 자연미와 건강효과를 나타내는 식물보존공예품은 인기를 모으는 기념품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사 화

쑥떡에 깃든 사연 (3)

글 김정희, 그림 채대성

남편은 상우에 놓인 파르스름한 쑥떡을 하나 들어 입에 넣고 씹더니 인츰 꿀꺽소리를 내며 목구멍으로 넘기는것이였다.

《아주 맛이 좋구만. 눈맛도 있고 입맛은 더욱 별맛이요. 맨 조찰떡보다 더 맛이 있소. 자, 어서 하나 들어보우. 정말 목구멍으로 혀가 따라넘어갈 지경이요.》

순간 솔메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어리였다.

그는 남편이 집어주는 떡을 소중히 받아 입에 넣고 맛을 음미하며 씹어넘겼다.

쫄깃쫄깃한 떡에서 향긋한 쑥냄새가 페부로 흘러들며 상쾌한 맛을 주었다.

《정말 별미구만요. 이젠 됐소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늘을 감동시킨 당신의 정성이 이렇게 맛있는 쑥떡을 만들어냈구려. 앞으로 이런 쑥떡을 자주 만들어 먹기요.》

《그렇게 하겠사와요. 그러면 식량보탬도 되고 몸에도 좋으니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는 격이 되겠소이다.》

이튿날부터 솔메는 즐거운 기분으로 부지런히 쑥을 뜯어다가 삶아서 우려내여 여러가지 낟알가루와 섞어 떡을 빚어 상우에 올렸다.

이 쑥떡으로 하여 가정에는 화기가 넘쳐났다.

향긋한 쑥떡에 맛을 들인 후부터 남편의 오랜 속병은 점차 나아져갔고 건강도 회복되여갔다.

솔메는 매끼 쑥떡을 만드는것이 품이 많이 들었으나 힘든줄 몰랐고 떡도 쑥절편, 쑥찰떡, 쑥송편 등 여러가지로 만들어 남편에게 드렸다.

쑥떡으로 때식을 하여 한달이 되자 남편의 얼굴은 불깃불깃해졌으며 두달이 되면서부터는 몸이 부해지고 힘과 기운도 늘어났다.

병세가 씻은듯이 사라져가자 범이는 자기때문에 지금껏 애쓰며 고생해온 솔메를 위해주느라 두손을 걷고 땔나무도 해오고 하루종일 밭김도 매며 집안일에 발벗고 나섰다.

그러나 솔메는 반가와할 대신 오히려 남편을 나무람하였다.

《제가 당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애쓴것은 우리 한가정을 위해서가 아니예요. 저는 어느 한순간도 아버지와 마을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원쑤를 꼭 갚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버린적이 없어요. 이런 마음을 지니고있었기에 제가 당신을 위해 정성을 기울인것이예요. 이제 또 외적들이 쳐들어올수 있으니 당신은 집걱정은 아예 말고 마을의 장정들과 함께 달맞이산으로 들어가 무술을 익히도록 하세요.》

《솔메, 그 깊은 마음을 내 미처 헤아리지 못했구려. 사내대장부로서 솔메의 소원을 꼭 풀어주겠다는것을 맹약하겠소.》

범이는 가슴속에서 불뭉치같은것이 뭉클 치밀어올라 뒤말을 잇지 못하고 솔메의 두손을 꼭 그러잡았다.

그 다음날부터 범이는 마을장정들과 함께 말타기와 칼쓰기, 활쏘기와 창던지기 등 무술을 익히며 외적들과 맞서싸울 준비를 갖추어나갔다.

이렇게 무술을 련마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이는 젊은 시절의 기상이 되살아나 집채같은 바위도 단숨에 들어올렸고 산중의 호랑이도 무색할 정도로 험준한 산발들을 씽씽 타고다녔다.

쑥골마을사람들은 다시금 름름한 무사로 변모된 범이의 모습을 보고 솔메의 지극한 정성과 바위처럼 굳센 마음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예로부터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고 하더니만 솔메의 지극한 정성이 쑥떡을 낳았고 그 쑥떡이 범이의 속병을 말끔히 털어냈구만.》

《그렇고말구요. 강의하고 이악한 솔메가 아니면 누가 할수 있었겠소. 범이를 다시 무사로 내세운것만 봐도 과시 솔메는 치마두른 대장감이라 할수 있네.》

마을로인들이 솔메를 칭찬하자 녀인들도 맞장구를 치며 서로들 끼여들었다.

《그럼요. 솔메야말로 우리 쑥골마을의 복덩이예요. 그는 제손으로 복을 찾았어요.》

《범이어른이 새서방적보다 더 젊어보이고 또 름름한 무사가 되였으니 시샘이 날 정도로 부럽구만.》

녀인들이 전해주는 치하의 말을 듣고 조용히 웃고있던 솔메는 정색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너무 그러지들 말아요. 그 집들에서야 남편들을 먼저 싸움터로 떠밀어보내지 않았댔나요. 저도 이 쑥골에 태를 묻고 자랐으니 응당 자기 할 도리를 해야겠는데 정성이 모자라다나니 그렇게 못해서 항상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제는 제 남편도 떳떳하게 싸움터로 내보낼수 있게 되였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솔메!…》

마을녀인들은 솔메의 손을 서로 잡으며 그의 깨끗한 마음에 감동되여 뜨거운 눈물을 삼키였다.

얼마후 또다시 외적들이 나라의 지경을 넘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쑥골에 와닿자 범이는 곧 싸움에 나갈 준비를 갖추었다.

솔메는 싸움터로 떠나는 남편에게 아버지가 쓰던 장검을 내놓으며 당부하였다.

《아버지의 원쑤를 꼭 갚고야말겠다는 마음을 안고 당신에게 의탁했던 뜻을 오늘에야 성취하게 되였나이다. 제비둥지가 깨지면 알이고 새끼고 살아날수 없는것처럼 나서자란 정든 고향과 나라가 없으면 한집안의 행복도 바랄수 없지 않소이까? 집걱정은 마시고 외적들을 모조리 쳐부시고 몸성히 돌아와주사이다.》

《내 솔메의 그 부탁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는 외적들이 우리 땅을 넘보지 못하게 쫓아버리고 돌아오겠소. 잘 있소.》

범이는 솔메의 두손을 뜨겁게 잡아준 다음 준마에 올라 채찍을 날리며 싸움터로 달려나갔다.

달맞이산에서 무술을 련마한 마을장정들과 함께 범이는 외적의 무리를 맞받아나가며 장검과 창을 번개같이 휘둘렀다.

사나운 범의 기상을 하고 족쳐대는 범이의 앞뒤에서 외적들은 삼대처럼 쓰러졌다.

《호랑이같은 장사가 나타났다.》

혼비백산한 외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흉기들을 내던지고 줄행랑을 놓았다.

《외적들을 한놈도 놓치지 말라!》

범이는 소리를 지르며 군사들과 함께 말을 달려 도망치는 적들을 무찔러 멀리 지경밖으로 쫓아버렸다.

범이에게 어찌나 혼쌀이 났던지 외적들은 쑥골마을에 범같은 장수가 났다고 벌벌 떨며 다시는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속병이 들어 약해졌던 범이를 무적의 장수로 되게 한 향기롭고 빨리 쉬지도 굳어지지도 않는 쑥떡은 눈맛도 좋고 입맛도 있으며 더우기는 위병에 특효가 있는것으로 하여 그후부터 쑥골마을 사람들은 즐겨 만들어 먹게 되였다.

그리하여 쑥골은 병이 없는 마을로 소문이 나게 되였으며 쑥떡을 많이 빚어먹는다고 떡섬마을이라고도 불렀다.

쑥떡은 점차 마을과 마을을 넘어 다른 지방에도 널리 퍼져나갔다.

세월이 흐르면서 쑥떡은 속병에 특효가 있어 간을 보호하고 위장치료에 좋을뿐아니라 랭병과 고혈압, 기관지염 등 여러가지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것이 확증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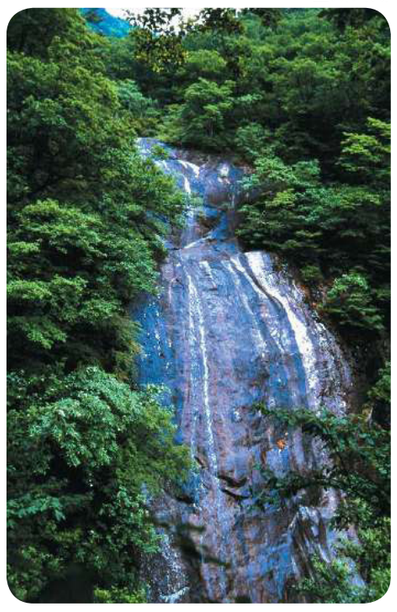
사람들은 쑥이 돋아나 자라는 봄철에 햇쑥을 잘 말리워두었다가 봄은 물론 여름, 가을, 겨울에도 별식으로 쑥떡을 빚어먹는것을 하나의 풍습으로 여기게 되였다.

(끝)

천연기념물

부연리천주폭포

공화국의 신흥군 부연리에서 14km 떨어진 깊은 골짜기에 천연기념물로 보호관리되고있는 부연리천주폭포가 있다.



폭포의 동쪽에는 천주봉이 있고 북쪽에는 부전령산줄기를 따라 고대산이 있다.

폭포는 80° 정도의 경사로 된 절벽을 따라 한번 떨어졌다가 70° 경사의 절벽으로 다시 흐르며 떨어진다.

폭포의 전체 높이는 60m이며 대체로 가물철에는 너비가 2m이고 장마철에는 10m이다.

주변에 참나무, 단풍나무, 고로쇠나무 등으로 수림을 이루고있는 부연리천주폭포는 그 장쾌함과 함께 아름다운 풍치를 이루고있는것으로 하여 천연기념물로 보호관리되고있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쌀은 쏟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줏는다

말이란 한번 입밖에 내면 달리 변경시키지 못하기때문에 말에 각별한 조심을 해야 한다는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쌀먹은 개 욱대기듯

나쁜짓을 한자가 시침을 뚝 따고 도리여 떡떡거리며 우락부락하는 경우를 두고 비겨 이르는 말.

—쌀자루는 있어도 글자루는 없다

쌀을 담아두는 자루는 있어도 글을 담아두는 자루는 없다는 뜻으로서 지식은 단꺼번에 많이 소유할수가 없기때문에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의것으로 익혀야 함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ㄱ—1610ㄷ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